

시볼트의 「조선견문기」(朝鮮見聞記)라는 책이 있다. 지금부터 1백63년전 즉 1832년에 독일인 의사가 쓴 책인데 당시 우리나라를 서양에 소개한 글이다. 이 책은 그리 길지도 않고 그 내용도 좀 빈약한 편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미 1987년에 번역되어 나와 있다. 나는 이 번역된 책을 사다 놓아둔 채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금년 초에야 갑자기 이 책을 지은 시볼트라는 인물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

도 들어 있다. 그의 「조선견문기」 서문에 써 놓은 것처럼 시볼트는 1823년부터 1829년까지 일본 나가사키(長崎)에서 살다가 돌아간 독일 의사다. 그는 유럽에 돌아간 다음 여러 권으로 일본을 소개하는 책들을 냈는데, 이 「조선견문기」는 그가 쓴 「일본」이란 책들 가운데 일부를 구성하고 있을 뿐이다.

필립 프란츠 폰 시볼트(Philip Franz von Siebold, 1796~1866)는 남부 독일에서 태어나 그 곳 대학에서 의학 등을

「조선견문기」 쓴 독일 의사 필립 프란츠 폰 시볼트 (1796 ~1866)

朴 星 來

(한국외대교수 / 과학사)

87년에 이미 번역출간

바로 우리나라의 견문기를 쓴 이 시볼트가 일본 근대 과학사에 빼 수 없는 유명한 인물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일본 역사에서의 시볼트에 대해서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알고 있고 또 그의 중요성을 여러번 글로 쓴 일도 있다.

어느날 우연히 내 책장에 꽂혀 있는 시볼트의 「조선견문기」에 눈이 닿으면서 나는 일본 과학사의 시볼트를 연상하고 그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같은 인물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바로 「조선견문기」를 전부 읽어 내려갔다. 시볼트는 우리나라를 다녀간 적이 없다. 그는 일본에 살면서 일본에 표류해 간 조선인들을 만나 취재해서 글을 썼고 조선어에 대한 지식을 쌓아 그것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또 중국에 표류해 갔다가 조선을 거쳐 돌아온 일본 어부의 견문기록, 일본 역사책에서 뽑아낸 조선역사에 관한 글들

공부하고 1822년 화란의 동인도회사 군의(軍醫)로 취직해서 이듬해 일본에 오게 되었다.

화란 軍醫로 일본에 파견

나가사키에는 당시 화란(和蘭) 사람들이 상주하면서 일본과 무역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곳의 화란 상관(商館)에 주재 의사로 일하게 되었던 까닭이다. 이미 일본에 화란사람들이 활동하기 시작한지 1세기가 지나서 나가사키에는 일본 청년들이 몰려들어 화란말을 배우고 그 말을 이용해서 서양의 근대 과학을 익히고 있었다. 시볼트는 바로 이런 청년들을 모아놓고 서양의 의학을 가르쳤다. 의학을 가르치다 보니 자연히 근대 생물학과 박물학에 대해서도 가르치게 되었다. 또 1826년에는 화란 상관의 우두머리를 따라 당시 일본의 서울이었던 에도(江戸 : 지금의 동경)에 가서 일본의 지도적 지식인들과 과학자들을 만나 그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그가 남

1822년 유럽 화란의 동인도회사 軍醫로 일본에 파견된 독일인 의사 시볼트. 그는 일본에 7년동안 주재하면서 나가사키에 병원을 차리고 일본의 동·식물 등 자연을 관찰, 연구하여 일본의 근대과학 발전에 이바지했다. 귀국 후엔 일본과 조선견문기를 써서 유럽에 소개하는 업적도 남긴 시볼트를 재조명해 본다.

긴 역사상의 업적으로는 두가지를 꼽을 수 있다. 하나는 그가 나가사키의 나루다끼(鳴龍)란 곳에 병원을 차리고 그곳에서 의학 및 과학을 가르쳤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자연, 유럽에 소개

두번째로는 그가 일본에 있는 동안 수집한 자료와 지식을 정리하여 서양에 일본의 자연을 소개했다. 1835년부터 1844년까지 「일본의 식물」을 썼고, 1833년부터 1850년 사이에는 「일본의 동물」을 썼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는 대작을 써서 서양에 당시로서는 가장 완벽한 일본의 모든 것을 안내하는 책을 썼다는 점은 주목할 일이다.

요컨대 시볼트는 일본 과학사에 이바지한 공헌으로 기억되는 인물이면서 동시에 일본을 서양에 소개한 공으로도 기억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 역사책에는 그가 1828년 귀국하려 했을 때 일어난 '시볼트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가 가지고 나가려 했던 물품 가운데 금수품이 있어 크게 말썽이 일어났던 때문이다. 이 사건은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데 그만큼 그는 당시 아주 많은 자료를 가지고 나갔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그는 당시 일본에 관한 상세한 지도 등을 가지고 나가려다가 말썽이 났다. 이 사건에 연루되어 많은 일본인들이 처벌받았음은 물론 시볼트도 1년 이상 출국이 금지되었다.

그 후 그는 화란과 독일에서 연구생활을 계속하다가 일본이 정식으로 개국한 다음 화란회사의 고문으로 1859년 다시 일본에 왔고 한때 일본 막부 정권의 외교 고문까지 하며 살다가 1863년 고향 독일로 귀국했다. 그리고 3년 뒤인

1866년 10월 18일 뮌헨에서 죽었다.

여하튼 일본 과학사에서 시볼트는 개국 이전에 활약했던 서양사람 가운데 가장 일본 근대과학 발전에 이바지했던 두세명의 은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을 정도다. 특히 그의 일본인 제자가운데 여러 명이 일본 근대과학의 개척자로 기억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 제자로 두사람만 들어보자. 이등규개(伊藤圭介, 1803~1901)는 명고옥(名古屋) 출신으로 일본 역사에서는 대표적 박물학자로 손꼽히고 있다. 1827년 25살때 이미 그는 나가사키로 시볼트를 찾아가 짧은 기간동안 그에게 직접 교육을 받았다.

이 때 시볼트에게서 얻어온 책 하나가 스웨덴 학자가 쓴 일본 식물에 관한 책이었다. 그는 이 책에 크게 감동을 받아 그 후 일본의 식물을 연구하는 길로 들어서서 세계에 일본을 소개하는 학자로 성장하게 된다. 또 그는 고향에 돌아온 바로 다음 린네의 제자였던 스웨덴 식물학자 칼 툰베리(Carl Thunberg, 1743~1828)의 「일본식물론」(Flora Japonica)을 일본말로 옮기고 주석을 달아 「태서본초명소」(泰西本草名疏, 1829)라는 책을 냈다. 툰베리는 1775년 나가사키에 도착하여 1년동안 일본 식물 8백여종을 채집하고 연구한 끝에 돌아갔는데 스웨덴의 읍살라대학 교수가 되어 1784년에 이 책을 냈던 것이다.

또 하나의 제자로 흔히 꼽는 사람은 고야장영(高野長英, 1804~1850)이다. 1825년 나가사키에서 시볼트 제자가 되었던 그는 시볼트에게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연구를 계속하여 1832년 「의원추요」(醫原樞要)라는 책을 냈는데 일본 최초로 서양 근대 생리학을 소개한 책이다. 또 그는 탈레스에서 라이프니츠

까지의 서양 자연철학을 소개한 책을 쓰기도 했고 병서를 쓰기도 했다. 그 밖에도 서양과학을 소개하는 글을 많이 쓴 것 같으나 남아있는 것은 드물다.

딸은 일본 최초의 여의사

그 밖에도 여러 근대 과학자가 시볼트의 직·간접의 제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볼트에 대한 기념사업이 일본에서는 여러가지로 크게 활발하다. 게다가 시볼트가 남긴 일화 가운데에는 그가 유곽의 창녀와 관계해서 딸을 얻었다는 사실도 있다. 당시 21살이었던 이 창녀가 시볼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은 그해 2월 19일자 포주 보고서에 기록되어 남아 있기도 하다. 그런데 흥미있는 사실은 이때 얻은 혼혈아가 뒤에 일본 최초의 산부인과 여의사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도 보기에 따라서는 시볼트가 일본 근대의학에 남긴 업적이라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일본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가 일본을 이렇게 열심히 연구한 것은 당시 화란 사람들의 동양식민지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화란의 동인도회사가 막대한 자금을 그에게 지원하여 일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얻으려 했다는 것이다. 그가 일본지도를 밀수출하려다가 걸렸던 것도 이런 화란인들의 목적 때문이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동경을 여행하는 동안에도 기압계, 온도계, 고도계 등을 가지고 다니며 각 지역의 기상정보까지 수집했던 것이 밝혀져 있다. 당시 서양인들의 노력이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식민지 개척정신과 연관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시볼트의 「조선견문기」 역시 이런 의미를 깔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④7